

지방분권운동 경기본부 결성을 위한 간담회

● 일시 : 2005년 4월 6일 오전 11시

● 장소 :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실

● 참석자 : 경기ymca(박은호), 경기환경련(안명균), 경기경실련(김현삼), 경기민언련(이주현), 경기여연(남길현), 경기복지시민연대(허윤범), 경기시민사회포럼(이대수, 송은주)

● 회의내용

1. 이대수 사무처장: 분권운동전국본부 활동에 대한 소개와 경기본부 결성제안에 대한 필요성 설명함.

2. 김현삼 사무처장 : 2000년 이후 분권운동 전국본부의 흐름과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함.

- 경기도에서 분권운동이 힘을 갖기 어려웠던 이유와 경기도지역의 경과 설명함.
- 노무현정부의 정책의 이중성: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분권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수도권 일부지역들에 대단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등
- 수도권 시민단체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의견을 공유하기 어려움. 수도권의 기득권층과 갈등도 문제.
- 막상 분권이 이루어져도 지자체 장의 도덕적 수준이 그에 걸맞게 갖춰져 있느냐는 다른 문제, 결국 견제 가능한 주민자치권이 동시에 확대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.

3. 박은호 처장 : 분권과 분산을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함.

- 지방의 내재적 준비에 대한 고민 필요. 현재 기관 위임사무 이상의 능력과 고민이 없다.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.
- 수도권의 다양한 계층의 내용적 네트워크(?) 필요

4. 허윤범국장 :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권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현재의 상황으로 분권이 이루어져서 복지가 확대될까에 대한 고민이 됨.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

5. 남길현 국장 : 2, 3년 전부터 분권운동을 추진하려 해도 수도권 지역 자체의 모순 때문에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.

- 경기본부의 결성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.

6. 안명균 처장 : 분권만이 아니라 자치운동이 중요하고 오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사전회의는 불필요할 것 같고 준비토론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.

7. 이주현 처장 : 분권운동이 필요한데 충분히 의논하자

의결 사항

1. 경기지역의 경우 분권운동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동의하다.

2.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경기지역의 경우 지방분권과 자치운동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다.

3. 경기시민사회포럼에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안문을 작성해서 각 단체에 보내 단체에서 의견을 나누고 15일 준비토론회를 가진다.

4. 토론회 후 회의에서 준비위 결성을 구체화하기로 한다.

5. 준비와 관련하여 이대수처장 김현삼처장이 의논하여 추진하기로 하다.

=지방분권자치운동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및 회의개최

○ 일 시 : 2005년 4월 15일 2시~5시

○ 장 소 : 경기시민사회포럼 강의실

○ 참가대상 : 도단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, 실무책임자 참가